

흡연 청소년의 신념, 친구교제, 통제력, 흡연 의도 및 자기효능에 대한 비교연구

김희경* · 최은숙** · 문선순** · 강현숙* · 강희숙*** ·
박연숙* · 신연순* · 안정선* · 조순지*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 **공주대학교 보건학부 ·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목 차〉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고찰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출생과 더불어 역동적인 삶의 순환적 세계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경험을 가지며 성장하고 발달한다. 특히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전환점에 있는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성숙 간의 갈등과 불균형을 경험하면서 그 동안의 성장과정에서 획득한 지식을 기반으로 삶의 세계를 확장시켜 이들만의 독특한 인간행위를 구축해 나간다. 이렇게 독특하게 형성된 인간행위들 중에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건강과 관련된 행위는 성인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활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올바른 건강행위는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기는 성인과는 달리 가족이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사건에 종속되어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학업 중심의 치열한 입시 경쟁이 주류를 형성하며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많은 학생들은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일탈 행위에 노출되기 쉽다. 청소년기에 대표적인 일탈 행위인 흡연이 일단 습관으로 고착되면 이것을 교정하기가 매우 힘들뿐 아니라, 음주나 약물 남용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성인기의 생활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흡연 행위는 일평생의 건강을 위협할 잠재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흡연은 우리

교신저자: 김희경

충남 공주시 옥룡동 326 공주대학교 영상보건대학 간호학과
전화번호: 041-850-6018, E-mail: hkkim@kongju.ac.kr

몸의 모든 세포, 장기 그리고 조직들의 조기 노화를 일으켜 수명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성인병, 노쇠 현상, 피부 노화, 정력 감퇴 등의 심각한 신체적 피해와 이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의 경제적, 정신적인 피해를 유발하며, 간접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1997년 청소년 보호법을 제정하여 담배를 청소년 유해 약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담배 사용 및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법제처, 1999), 흡연은 단일요소로서 국민건강에 많은 피해를 주는 위험요인으로 예방이 가능한 동시에 가장 중요한 사망원인으로서 담배 속에는 적어도 20여종의 A급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인류에게 발생하는 암 중 30-40%는 담배로 인한 것이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2002)의 전국 중, 고등학교 학생 흡연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남학생의 흡연률은 2002년 현재 23.6%, 여학생은 7.3%이며 중학교의 경우 남학생 흡연률이 3.5%, 여학생은 0.9%로 나타났으며, 흡연여부에 따른 음주여부를 보면 남자중학생의 경우 흡연자의 60.87%, 남자고등학생의 경우 흡연자의 88.89%, 여자중학생은 흡연자의 77.78%, 여자고등학생은 흡연자의 79.69%가 흡연과 동시에 술을 마시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청소년의 흡연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김희경 외(2002)의 연구에 의하면 흡연시기, 사회규범에 대한 신념, 흡연조절에 대한 행위통제 지각, 학년, 흡연을 하는 친구와의 차별적 교제, 흡연의도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andura(1986)는 지식과 행동 사이에는 자기 준거적 사고가 매개하며 어떤 행동을 택하고, 그 행동을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오래 지속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을 자기효능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자기효능은 바람직한 행동변화의 주요 예측인자로 신성례(1996)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이 높을수록 흡연율이 감소하였음을 보고하여 자기효능이 미래의 금연행위로 이어짐을 확인하였다. 유일경(2000)은 흡연자에 비해 비흡연자가 학교생활 만족도나 학교성적 등의 학교생활 태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고 심희구(1999)도 비흡연자의 비행경험에 비해 흡연경험자의 비행경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여 흡연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금연과 관련된 중재연구(신성례, 1996; 임소연, 1996; Bertrand & Abernathy, 1993)들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또한 흡연예방을 위해서는 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청소년의 인지·행동적 변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흡연예방 교육프로그램 속에 이러한 변인을 강화한 중재내용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중·고등학교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흡연과 관련된 영향요소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흡연자와 흡연 중단자,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영향요소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현재 흡연자와 흡연 중단자 및 비흡연자 간의 흡연관련 요인에 대한 비교 연구가 없는 실정이며 영향요인들의 통합적인 연구 역시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흡연, 흡연 중단 및 비흡연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규범에 대한 신념, 친구와의 차별적 교제, 행위통제 지각, 흡연의도 및 흡연거절에 대한 자기효능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규명하여, 청소년 흡연 예방 및 금연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과 홍보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흡연, 흡연중단 및 비흡연 청소년을 대상으로 흡연행위와 관련된 인지적, 사회적 변인인 사회규범에 대한 신념, 친구와의 차별적 교제, 행위통제 지각, 흡연의도 및 흡연거절에 대한 자기효능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규명하여, 비흡연, 흡연중단 및 흡연청소년의 각 변인적 특성을 인식함으로써 이를 활용한 청소년 흡연 예방 및 금연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교육과 홍보에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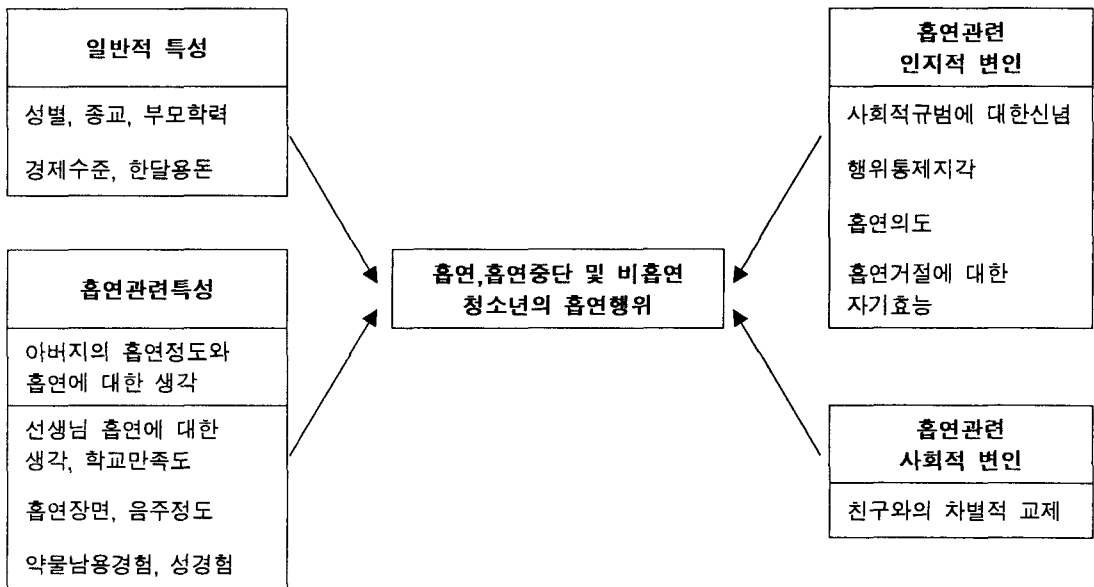
1.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과 흡연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2. 흡연, 흡연중단 및 비흡연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과 흡연관련 특성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검정한다.

3. 흡연, 흡연중단 및 비흡연 청소년의 집단 간 신념, 친구, 행위통제, 의도 및 자기효능의 차이를 검정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의 개념적 기틀

본 연구는 흡연, 흡연중단 및 비흡연 청소년의 흡연행위와 관련된 인지적 사회적 변인들인 사회규범에 대한 신념, 친구와의 차별적 교제, 행위통제 지각, 흡연의도 및 흡연거절에 대한 자기효능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규명하기 위해 흡연행위와 관련된 문헌고찰을 통해 연구의 개념적 기틀을 구축하였다(그림 1). 연구의 개념들은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흡연행위와 관련된 일반적 특성과 흡연관련 특성, 흡연관련 인



<그림 1> 연구의 개념적 기틀

지적 사회적 변인들로 구성하였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충남 K시에 다니는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비확률 임의표출방법으로 선정하여 자료가 미비한 대상자를 제외한 중학생 145명, 고등학생 431명, 총 576명을 대상으로 흡연자, 흡연 중단자, 비흡연자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02년 12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였으며, 자료 수집 방법은 각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보건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보건 교사의 도움을 받아 학생들이 솔직히 응답할 수 있도록 질문지 작성 방법 등을 교육한 후 수거하였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 도구는 다음과 같다.

1) 사회규범에 대한 신념

사회규범에 대한 신념은 주어진 행동과 관련된 규범적 태도로, Committee for Adolescence Guidance(1988)에서 개발하여 타당도를 검토한 7문항의 도구로 구성되어 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1점, '확실히 그렇다' 5점 척도로 측정하는 점수로 평균점수 범위는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규범적 신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손정남(2000)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1$ 이었으며 본 도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2$ 이었다.

2) 친구와의 차별적 교제

친구와의 차별적 교제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 동료로부터 이탈적 태도, 가치, 동기, 충동 등을 학습하여 집단화 상황에 놓이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구창모, 1991).

이는 교제 빈도, 강도, 기간에 따른 친구의 흡연 행위에 대한 인지정도인 흡연 동료의 수를 묻는 것으로 Krohn 외(1982)이 개발한 Differential peer association 도구 총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없다' 1점, '대부분이다' 4점 척도로 측정하여 평균점수 범위는 최저 1점에서 최고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흡연동료와의 차별적 교제가 많음을 의미한다. 손정남(2000)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5$ 이었으며 본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6$ 이었다.

3) 행위통제 지각

흡연통제 지각은 흡연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을 얼마나 쉽게 또는 어렵게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믿음을 의미한다. 이는 Hanson(1997)이 사용한 도구를 최정명(2000)이 번안 수정한 도구로 흡연 행위를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가를 묻는 3문항 7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평균점수 범위는 최저 1점에서 최고 7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흡연 행위를 잘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정명(2000)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1$ 이었으며 본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7$ 이었다.

4) 흡연 의도

흡연의도는 흡연 행위를 하고자하는 개인의 의지를 말하며 Newman 외(1982)이 개발한 도

구를 최정명(2000)이 번안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흡연 행위에 대한 의사를 묻는 3개의 문항으로 7점 어의 구별 척도로 측정되는데 평균점수 범위는 1점에서 7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흡연 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최정명(2000)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6$ 이었으며 본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5$ 이었다.

5) 흡연거절에 대한 자기효능

흡연거절에 대한 자기효능은 특정 상황에서 특정 행위를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신념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자기효능 도구는 노정리(1996)가 개발한 도구로, 흡연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행동의 자신감에 대한 신념을 측정하는 18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흡연 유혹을 물리칠 자신이 전혀 없고 흡연할 수밖에 없다’ 0점에서 ‘흡연 유혹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다’ 10점까지의 척도로 평균 점수 범위는 최저 0점에서 최고 1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효능이 높아 흡연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노정리(1996)의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 = .85$ 이었으며 본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8$ 이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평균, 표준편차, 백분율의 서술적 통계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 검사인 Cronbach's α 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각 집단 간 비교, 흡연특성에 따른 집단 간의 비교 분석은 χ^2 -test, 집단간 연구변수의 차이는

ANOVA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398명(69.1%), 여학생이 178명(30.9%)이었고, 중학생은 145명(25.1%), 고등학생은 431명(74.9%)이었다. 종교는 기독교 158명(27.4%), 불교 119명(20.7%), 천주교 21명(3.6%), 기타 10명(1.7%)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가 없는 사람이 266명(46.2%)으로 나타났다. 경제 수준은 최상 25명(4.3%), 중상 56명(9.7%), 중 300명(52.1%), 중하 144명(25.0%), 최하가 46명(8.0%)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은 국졸 이하 153명(26.6%), 중졸 142명(24.7%), 고졸 206명(35.8%), 대졸이상 66명(11.4%)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학력은 국졸 이하 165명(28.6%), 중졸 182명(31.6%), 고졸 182명(31.6%), 대졸이상 27명(4.7%)으로 나타났다. 한달 용돈은 2만원 미만이 178명(30.9%)으로 가장 많았고, 5만원 이상과 3만원 미만이 각각 119명(20.7%), 4만원 미만이 66명(11.5%), 5만원 미만이 65명(11.3%)으로 가장 적었다.

2. 흡연 관련 특성

대상자의 흡연 관련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2).

대상자 중 흡연유무 상태는 비흡연자 254명(44.1%), 흡연중단자 160명(27.8%), 흡연자 161명(28.0%)으로 나타났다. 흡연자와 흡연중단자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576

특성	구분	실수(명)	백분율(%)
성별	남	398	69.1
	여	178	30.9
학년	중학생	145	25.1
	고등학생	431	74.9
종교	기독교	158	27.4
	천주교	21	3.6
	불교	119	20.7
	기타	10	1.7
	무	266	46.2
	경제수준	최상	25
	중상	56	9.7
	중	300	52.1
	중하	144	25.0
	최하	46	8.0
아버지의 교육정도	국졸이하	153	26.6
	중졸	142	24.7
	고졸	206	35.8
	대졸이상	66	11.4
어머니의 교육정도	국졸이하	165	28.6
	중졸	182	31.6
	고졸	182	31.6
	대졸이상	27	4.7
한달용돈	2만원미만	178	30.9
	3만원미만	119	20.7
	4만원미만	66	11.5
	5만원미만	65	11.3
	5만원이상	119	20.7

가 최초로 흡연을 경험한 시기는 초등학교가 104명(43.3%)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가 102명(38.0%), 고등학교가 62명(23.2%)으로 초등학교 때 흡연을 경험한 청소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자의 현재 흡연 정도를 1개월 당 흡연 개피 수로 계산한 결과 4갑반에서 13갑반(91-270개피) 70명(43.5%), 13갑반에서 48갑

(271-960개피) 35명(21.7%), 1갑반(30개피) 이하 26명(16.1%), 1갑반에서 4갑반(31-90개피)이 26명(16.1%)으로 나타났다. 흡연 기간을 개월 수로 계산한 결과 12개월 이하 69명(21.5%), 37개월 이상 53명(16.5%), 13개월-24개월 37명(11.5%), 25개월-36개월 32명(10.0%)으로 나타났다.

<표 2> 흡연관련 특성

N=576

특성	구분	실수(명)	백분율(%)
현재의 흡연상태	흡연자	161	28.0
	흡연중단자	160	27.8
	비흡연자	254	44.1
흡연의 첫경험 (흡연자, 흡연중단자에 해당)	초등학교때	104	43.3
	중학교때	102	38.0
	고등학교때	62	23.2
흡연자의 1개월당 흡연개피수	30개피이하	26	16.1
	31-90개피	26	16.1
	91-270개피	70	43.5
	271-960개피	35	21.7
흡연자의 흡연기간	12개월이하	69	21.5
	13-24개월	37	11.5
	25-36개월	32	10.0
	37개월이상	53	16.5
아버지의 흡연여부	흡연하지 않는다	122	21.2
	흡연을 중단하였다	59	10.2
	자주 흡연한다	85	14.8
	반갑/일 1갑/일	200 90	34.7 15.7
아버지의 흡연에 대한 생각	매우 찬성한다	7	1.2
	찬성한다	17	3.0
	보통이다	119	20.7
	찬성하지 않는다	124	21.5
선생님의 흡연에 대한 생각	매우 찬성하지 않는다	235	40.8
	매우 찬성한다	15	2.6
	찬성한다	31	5.4
	보통이다	250	43.4
영화나 TV에서 흡연장면을 본 느낌	찬성하지 않는다	88	15.3
	매우 찬성하지 않는다	181	31.4
	흡연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58	10.1
	멋있으나 흡연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113	19.6
음주	아무런생각이 없다	353	61.3
	혐오스럽다	43	7.5
	전혀마셔본 경험이 없다	80	13.9
	1-2번 마셔본적이 있다	180	31.3
약물남용경험	가끔 마신다	247	42.9
	자주 마신다	62	10.8
	있다	16	2.8
경험자중 현재 약물남용 성경험 유무	없다	547	95.0
	하고 있다	8	50.0
	있다	83	14.4
	없다	476	82.6

* 무응답자 제외함.

아버지의 흡연 정도는 하루 반 갑이 200명 (34.7%)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루 한 갑 이상이 90명(15.7%), 가끔 피우는 경우가 85명 (14.8%), 피우다가 끊은 경우가 59명(10.2%)으로 나타났고 전혀 피우지 않는 경우도 122명 (21.2%)이었다.

아버지의 흡연에 대한 생각은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가 235명(40.8%)로 가장 많았고 찬성하지 않는다가 124명(21.5%), 보통이다가 119명 (20.7%)으로 나타났다.

선생님의 흡연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은 보통이다가 250명(43.4%),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가 181명(31.4%)으로 나타났으며, 찬성하지 않는다가 88명(15.3%)으로 나타나 90%의 학생이 선생님의 흡연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영화나 TV장면에서 흡연하는 장면을 보면 아무런 생각이 없다가 353명(61.3%), 멋있으나 흡연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가 113명(19.6%), 흡연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가 58명(10.1%), 혐오스럽다고 느낀다가 43명(7.5%)으로 나타났다.

음주 정도는 가끔 마신다 247명(42.9%)으로 가장 많았으며, 마셔본 적이 한 두번 있다 180명 (31.3%), 자주 마신다 62명(10.8%)으로 나타났으며, 전혀 마셔본 경험이 없는 학생은 80명 (13.9%)이었다. 약물 남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

한 사람은 16명(2.8%)으로 나타났으며, 경험자 중 현재 약물을 남용하고 있는 사람은 8명 (50%)으로 나타났으며 성경험은 83명(14.4%)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변수의 서술적 통계

본 연구에 이용된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범위의 서술적 통계는 다음과 같다(표 3). 사회 규범에 대한 신념은 5점 만점에 3.49±.70점으로 보통정도의 신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친구와의 차별적 교제는 4점 만점에 1.90±.91점으로 절친하고 오래 사귀 친구 중 1/2 미만이 흡연을 하여 차별적 교제의 정도가 보통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흡연을 조절할 수 있는 행위통제 지각은 7점 만점에 4.90±1.69점으로 흡연을 조절할 수 있는 자신에 대한 통제의 느낌은 약간 쉽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 의도는 7점 만점에 2.51±1.85점으로 흡연할 생각에 대해 대체로 그럴 가능성이 없고 대체로 그럴 것 같지 않으며 사실이 아닌 대체로 거짓으로 생각하였다. 흡연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자기효능은 10점 만점에 8.31±2.71점으로 흡연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자신감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연구변수의 서술적 통계

변수	평균(점수)	표준편차	범위(점수)
사회규범에 대한 신념	3.49	.70	1-5
친구와의 차별적 교제	1.90	.91	1-4
행위통제 지각	4.90	1.69	1-7
흡연의도	2.51	1.85	1-7
흡연거절에 대한 자기효능	8.31	2.71	0-10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비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비교는 <표 4>와 같다.

성별에 따라 비흡연자, 흡연중단자 및 흡연자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여($x^2 = 31.19, p=.000$) 비흡연자의 경우 남녀의 비율이 비슷하였으나 흡연자의 경우에는 남자가 130명(80.7%), 여자가 31명(19.3%)으로 비흡연자와 흡연 중단자보다

남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이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x^2 = 22.51, p=.004$) 비흡연자와 흡연 중단자에서 어머니의 학력이 중졸에 해당하는 경우가 각각 85명(34.4%), 57명(37.0%)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흡연자는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인 경우가 72명(46.5%)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한달 용돈은 비흡연자는 2만원 미만인 96명(40.0%)으로 가장 많았고 흡연 중단자에서도 2만원 미만이 45명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간 비교

특성	구분	비흡연자 N(%)	흡연중단자 N(%)	흡연자 N(%)	x^2	P
성별	남자	145(57.1)	122(76.3)	130(80.7)	31.19	.000***
	여자	109(42.9)	38(23.8)	31(19.3)		
종교	기독교	68(26.9)	50(31.4)	40(24.8)	5.84	.665
	천주교	11(4.3)	2(1.3)	7(4.3)		
	불교	55(21.7)	33(20.8)	31(19.3)		
	기타	5(2.0)	3(1.9)	2(1.2)		
	없음	114(45.1)	71(44.7)	81(50.3)		
경제수준	최상	12(4.7)	7(4.5)	6(3.8)	10.59	.226
	중상	21(8.3)	13(8.3)	22(13.8)		
	중	141(55.7)	86(54.8)	72(45.0)		
	중하	61(24.1)	42(26.8)	41(25.6)		
	최하	18(7.1)	9(5.7)	19(11.9)		
아버지의 학력	초졸	66(26.3)	46(29.5)	41(25.8)	5.15	.741
	중졸	67(26.7)	41(26.3)	33(20.8)		
	고졸	86(34.3)	54(34.6)	66(41.5)		
	대졸이상	32(12.8)	15(9.6)	19(11.9)		
어머니의 학력	초졸	77(31.2)	52(33.8)	36(23.2)	22.51	.004**
	중졸	85(34.4)	57(37.0)	40(25.8)		
	고졸	73(29.6)	37(24.0)	72(46.5)		
	대졸이상	12(4.8)	8(5.2)	7(4.5)		
한달용돈	2만원미만	96(40.0)	45(29.6)	37(23.9)	28.51	.000***
	3만원미만	54(22.5)	32(21.1)	33(21.3)		
	4만원미만	36(10.8)	25(16.4)	15(9.7)		
	5만원미만	23(9.6)	24(15.8)	18(11.6)		
	5만원이상	41(17.1)	26(17.1)	52(33.5)		

(29.6%)으로 가장 많았으나 흡연자는 5만원 이상이 52명(33.5%)으로 가장 많아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임으로서($\chi^2 = 28.51, p=.000$) 흡연자가 한달 용돈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종교나 경제수준, 아버지의 학력에서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 흡연관련 특성에 따른 집단 간 비교

흡연관련 특성에 따른 집단 간 비교는 <표 5>와 같다.

선생님의 흡연에 대한 생각은 비흡연자의 경우 보통이다가 96명(38.6%),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90명(36.1%)이었고, 흡연 중단자의 경우 보통이다 66명(42.6%),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54명(34.8%)이었으나, 흡연자의 경우 보통이다 87명(54.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37명(23.1%), 찬성하지 않는다 16명(10.0%)으로 나타나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33.95, p=.000$). 즉 흡연자가 선생님의 흡연에 대하여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비흡연자나 흡연 중단자에 비해 적게 나타나 흡연에 대한 거부반응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나 TV 장면에서 흡연하는 장면을 보면 비흡연자는 아무생각도 없다가 161명(64.1%), 멋있으나 흡연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가 59명(23.5%), 혐오스럽다가 27명(10.8%)으로 나타났다. 흡연 중단자는 아무생각도 없다 96명(61.5%), 멋있으나 흡연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가 40명(25.6%), 혐오스럽다가 11명(7.1%)으로 나타났다. 흡연자는 아무생각도 없다가 96명(60.0%)이었고 흡연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가 44명(27.5%)으로 나타나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93.78, p=.000$). 즉 영화나 TV에서

의 흡연 장면을 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나 흡연 중단자에 비해 흡연하고 싶은 충동이 월등히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흡연을 계속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 된다고 사료된다.

아버지의 흡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비흡연자가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129명(60.0%)으로 가장 많았으며 흡연 중단자도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71명(51.1%)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흡연자는 보통이다가 69명(46.9%)으로 나타나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88.77, p=.000$). 즉 비흡연자나 흡연 중단자는 아버지의 흡연에 대해 찬성하지 않으므로 금연하시기를 희망하나 흡연자의 과반수 이상(56.4%)이 아버지의 흡연태도에도 거부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음주정도에서는 비흡연자가 한 두번 마셔본 적이 있다 115명(45.8%)으로 가장 많았고 전혀 마셔본 적이 없다고 63명(25.1%)이었으며 흡연 중단자는 가끔 마신다가 82명(52.6%)으로 가장 많았고 한 두번 마셔보았다가 51명(32.7%)이었다. 흡연자는 가끔 마신다가 101명(62.7%)으로 가장 많았고 자주 마신다도 42명(26.1%)으로 나타나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168.14, p=.000$). 즉 비흡연자의 대부분(70.9%)은 흡연뿐만 아니라 음주 역시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흡연 중단자는 85.3%가 가끔 마시거나 마셔본 적이 한 두번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흡연자의 88.8%가 술을 즐겨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만족에서는 비흡연자가 불만족 한다가 46명(18.3%)이었고 흡연 중단자는 불만족 한다가 40명(25.3%)이었으나 흡연자는 불만족 한다가 56명(35.0%)으로 더욱 높게 나타나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18.31, p=.001$).

즉 흡연자가 비흡연자나 흡연중단자에 비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보여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경험에서는 비흡연자가 16명(6.5%), 흡연 중단자는 18명(11.8%), 흡연자는 49명(30.8%)으

로 나타나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46.78, p=.000$). 즉 흡연자가 비흡연자나 흡연 중단자에 비해 성적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흡연과 음주의 건강위해 행위가 성적인 행위를 유발한다는 보고와 일치하는 결

<표 5> 흡연관련 특성에 따른 집단간 비교

특성	구분	비흡연자 N(%)	흡연중단자 N(%)	흡연자 N(%)	χ^2	P
아버지의 흡연정도	전혀안피우심	63(25.9)	33(21.4)	26(16.4)	17.99	.116
	피우다 끊으심	23(9.5)	21(13.6)	15(9.5)		
	가끔 피움	40(16.5)	26(16.9)	19(12.0)		
	하루 반갑정도 피움	85(35.0)	50(32.5)	64(40.5)		
	하루 한갑이상 피움	32(13.2)	24(15.6)	33(20.9)		
선생님의 흡연에 대한 생각	매우찬성한다	4(1.6)	5(3.2)	6(3.8)	33.95	.000***
	찬성하는 편이다	5(2.0)	12(7.7)	14(8.8)		
	보통이다	96(38.6)	66(42.6)	87(54.4)		
	찬성하지 않는 편이다	54(21.7)	18(11.6)	16(10.0)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90(36.1)	54(34.8)	37(23.1)		
흡연장면에 대한 생각	흡연하고 싶은충동	4(1.6)	9(5.8)	44(27.5)	93.78	.000***
	멋있으나 흡연생각없음	59(23.5)	40(25.6)	14(8.8)		
	아무생각 없음	161(64.1)	96(61.5)	96(60.0)		
	혐오스러움	27(10.8)	11(7.1)	6(3.7)		
아버지 흡연에 대한 생각	매우찬성	2(0.9)	2(1.4)	3(2.0)	88.77	.000***
	찬성하는 편	4(1.9)	2(1.4)	11(7.5)		
	보통	29(13.5)	20(14.4)	69(46.9)		
	찬성하지 않는 편	51(23.7)	44(31.7)	29(19.7)		
	전혀 찬성안함	129(60.0)	71(51.1)	35(23.8)		
음주정도	전혀 마셔본적 없음	63(25.1)	12(7.7)	5(3.1)	168.14	.000***
	며셔본적 한두번	115(45.8)	51(32.7)	13(8.1)		
	가끔마십	64(25.5)	82(52.6)	101(62.7)		
	자주마십	9(3.6)	11(7.1)	42(26.1)		
약물남용경험	있다	4(1.6)	4(2.6)	8(5.0)	5.34	.254
	없다	244(98.4)	151(97.4)	152(95.0)		
학교만족	만족	44(17.5)	31(19.6)	16(10.0)	18.31	.001***
	보통	162(64.3)	87(55.1)	88(55.0)		
	불만족	46(18.3)	40(25.3)	56(35.0)		
성경험	있다	16(6.5)	18(11.8)	83(30.8)	46.78	.000***
	없다	231(93.5)	134(88.2)	110(69.2)		

* 무응답 제외

과라고 생각된다.

6. 연구변수에 따른 집단간 차이

연구변수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표 6>과 같다.

사회규범에 대한 신념은 흡연자는 3.22±.66점, 흡연 중단자는 3.42±.73점, 비흡연자는 평균 3.55±.67점으로 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흡연자가 비흡연자나 흡연 중단자에 비해 사회규범에 대한 신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10.96, p=.000).

친구와의 차별적 교제는 흡연자가 3.16±.81점, 흡연 중단자가 2.13±.81점, 비흡연자가 1.68±.74점으로 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흡연자가 비흡연자나 흡연 중단자에 비해 흡연하는 친구와의 차별적인 교제의 정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F=176.18, p=.000).

흡연을 조절할 수 있는 행위통제 지각은 흡연자가 3.63±1.59점, 흡연 중단자가 5.04±1.71점, 비흡연자가 평균 4.98±1.56점으로 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흡연자가 비흡연자나 흡연 중단자에 비해 흡연을 조절할 수 있는 행위통제 지각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39.65, p=.000).

흡연의도는 흡연자가 5.13±1.40점, 흡연 중단

자가 2.59±1.76점, 흡연자가 1.77±1.38점으로 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흡연자가 비흡연자나 흡연 중단자에 비해 흡연에 관한 유혹이 있을 때 흡연하려는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82.86, p=.000).

흡연거절에 대한 자기효능은 흡연자가 4.59±2.26점, 흡연 중단자가 7.91±2.84점, 비흡연자가 9.16±2.18점으로 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흡연자가 비흡연자나 흡연 중단자에 비해 흡연유혹을 받을 때 흡연을 거절할 수 있는 자기효능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185.04, P=.000).

IV. 고찰

1. 흡연, 흡연중단 및 비흡연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과 흡연관련 특성

본 연구에서는 흡연자가 28.0%로 나타나 도시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석구 외(2000)의 29.0%와 비슷하였다. 그러나 대구 경북지역 인문계 남자 고등학생을 조사한 윤용진 외(1996)의 22.0%와 서울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선영 외(2000)의 20%보다는 높았고 실업계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정진희 외(2002)의

<표 6> 연구변수에 따른 집단 간 차이

연구변수	비흡연자 M±SD	흡연중단자 M±SD	흡연자 M±SD	F	P
사회규범에 대한 신념	3.55 ± .67	3.42 ± .73	3.22 ± .66	10.96	.000***
친구와의 차별적 교제	1.68 ± .74	2.13 ± .81	3.16 ± .81	176.18	.000***
행위통제 지각	4.98 ± 1.59	5.04 ± 1.71	3.63 ± 1.59	39.65	.000***
흡연의도	1.77 ± .138	2.59 ± 1.76	5.13 ± 1.40	182.86	.000***
흡연거절에 대한 자기 효능	9.16 ± 2.18	7.91 ± 2.84	4.59 ± 2.26	185.04	.000***

49.3%, 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정명(2000)의 45.6%, 남자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권혜경 외(2001)의 42.8%, 손정남(2002)의 39.8%에 비해서는 낮았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25.1%(145명)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중소도시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흡연률도 도시지역의 학생들 못지 않게 비슷한 흡연률을 보였으므로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이 지역적 차별없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 금연운동협의회(2001)의 보고에 따르면 중학교 남자의 경우 1988년 흡연률이 1.8% 였는데 2000년에는 7.4%로 약 4.1배 높아졌고, 고등학교 남자도 같은 기간에 1.2배 증가하여 중학생의 흡연률이 고등학생보다 빠르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으며, 여자의 경우 1991년에 중학교 1.2%, 고등학교 2.4% 정도였는데 2000년에는 중학생 3.2%로 2.7배, 고등학생은 10.7%로 4.5배가 증가하여 여자고등학생의 흡연률이 급속하게 증가함을 보여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의 흡연률이 빠르게 증가하였고, 남자보다는 여학생에서 흡연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흡연자 중 최초 흡연경험 시기는 초등학교가 약 43%로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정미영 외(2001)의 50%보다 적으나, 김희경 외(2002)의 34.4%, 이선영 외(2000)의 9.6%보다는 높았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결과 흡연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므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흡연예방교육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성교육 등의 보건교육이 보건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흡연교육은 시범학교를 중심으로 2002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나 체계적이지 못하고 아직 그 교육의 효과에 대한 검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또

한 중·고등학교에서도 보건소와 연계하여 한 학교 당 1년에 1-2회의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일회성의 교육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어서 완전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정도의 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흡연예방교육의 효과에 대한 검정과 더불어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 이르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흡연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흡연자가 술을 자주 마신다(26.1%)고 응답한 경우가 비흡연자보다 많았으며, 약물남용(5.0%) 및 성 경험(14.9%)이 있다고 답변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권혜경 외(2001)의 음주경험 남학생 50%, 여학생 14.3%, 약물사용경험 남학생 50%, 여학생 18.4% 보다는 낮았으나, 류미경 등(2000)의 약물사용경험 5%와 같았다. 박현상 외(1999)의 연구에서도 흡연자가 비 흡연자에 비해 매주 1회 이상 상습적으로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흡연과 음주, 약물남용 및 성 경험 등 일탈 행위는 상호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음주 시에는 흡연을 하고싶은 충동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며 지나친 음주는 인격적으로 자아의 조절능력을 상실하게 함으로서 성적충동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를 상황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대로 즉흥적인 표출이 되도록 만드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청소년의 흡연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음주와 성행위를 함께 고려해야 하겠다.

흡연에 대한 태도를 보면 흡연자가 아버지의 흡연에 대해 찬성하는 경우가 9.5%, 비흡연자의 경우는 2.8%로 나타났고, 선생님의 흡연에 대한 찬성도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높았고, TV나 광고의 흡연 장면을 보면 흡연충동이 생긴다고 대답하였다. 안황란 등(2002)도 “흡연에 대해 좋

아 보인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비흡연자보다 흡연자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부정민(1999)의 연구에서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비행 정도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고 TV 등장인물의 흡연과 아버지의 흡연 등이 흡연자에게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대중매체의 흡연 장면, 가족 및 학교 선생님의 흡연 등 사회적 요인들이 청소년들의 흡연에 영향을 주므로 청소년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성인인 아버지, 선생님의 흡연태도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장면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가정과 학교와 같은 사회가 함께 청소년의 건강과 건전한 건강행위를 형성하는데 노력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대중매체에서의 흡연 장면도 청소년의 건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엄중히 제재해야 할 장면이며 가정이나 학교에서는 이러한 장면의 허위성을 알려 청소년이 흡연의 위해성에 대해 각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고 생각된다.

특히 흡연청소년의 경우 한국금연운동협의회(2002)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흡연 동기는 호기심, 친구를 따라서, 멋있게 보이기 위하여가 가장 많았고 가족 중 흡연자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흡연할 확률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흡연중학생 중 68.7%-85.7%가, 흡연고등학생 중 78.1%-84.2%가 금연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상자 중 90% 이상이 흡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금연할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면 추후 금연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대상자가 비흡연자인 경우 학교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안황란 외

(2002), 정진희 외(2002)의 연구, 그리고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류미경 외(200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학교에 적응을 잘하고 만족을 많이 할수록 흡연하고자 하는 의도가 적고 흡연 욕구를 덜 느낀다고 판단되므로 청소년의 집단 생활인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흡연, 흡연중단 및 비흡연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과 흡연특성 간의 차이

한달 용돈이 2만원 미만인 경우가 비흡연자는 40.0%, 흡연 중단자는 29.6%, 흡연자는 23.9%였고 5만원 이상인 경우는 비흡연자가 17.1%, 흡연 중단자가 17.1%, 흡연자는 33.5%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용돈이 많은 경우 흡연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28.51$, $P=.000$). 김희경 등(2002)의 연구에서 흡연 청소년의 한달 용돈과 친구와의 차별적 교제는 순 상관 관계를 나타내어 한달 용돈이 많을수록 흡연자는 흡연하는 친구와 차별적인 교제를 많이 하였으며($r=.296$, $p=.000$), 한달 용돈과 흡연 행위 역시 순 상관 관계를 보여 한달 용돈이 많을수록 흡연 청소년의 흡연행위가 많은 것($r=.181$, $p=.031$)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흡연자의 용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선생님의 흡연에 대한 생각에 대해 찬성하는 편으로 응답한 경우가 비흡연자는 42.4%, 흡연 중단자는 53.5%, 흡연자는 67.0%였고 찬성하지 않거나 전혀 찬성하지 않는 편은 비흡연자는 57.8%, 흡연 중단자는 46.4%, 흡연자는 33.1%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선생님의 흡연을 찬성하는 편은 흡연자에게 높게 나타났다(χ^2

=33.95, $p=.000$).

대중매체에서 흡연 장면을 본 후 흡연에 대한 느낌은 흡연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경우가 비흡연자는 1.6%, 흡연 중단자는 5.8%, 흡연자는 27.5%였고 혐오스럽다고 응답한 경우가 비흡연자는 10.8%, 흡연 중단자는 7.1%, 흡연자는 3.7%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흡연 장면에 대해 거부감이 없는 편이 흡연자에게 높게 나타났다($\chi^2=93.78$, $p=.000$).

아버지의 흡연에 대한 느낌은 찬성하는 편이 비흡연자는 2.8%, 흡연 중단자는 2.8%, 흡연자는 9.5%였고 전혀 찬성하지 않는 편이 비흡연자는 60.0%, 흡연 중단자는 51.1%, 흡연자는 23.8%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아버지의 흡연에 대해 거부감이 없는 편이 흡연자에게 높게 나타났다($\chi^2=88.77$, $p=.000$).

흡연자는 선생님, 아버지의 흡연과 대중매체에서 보게 되는 흡연 장면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점은 흡연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환경적 요소와 교육적 요소가 적절히 주어지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흡연문제를 다루기 전에 아버지, 선생님이 먼저 금연을 하는 모범을 보이므로써 가정과 학교 및 사회에서 건전한 문화형성과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교육을 상호협동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음주정도와 관련하여 전혀 마셔본 적이 없는 경우가 비흡연자가 25.1%, 흡연 중단자는 7.7%, 흡연자는 3.1%였고 자주 마신다는 경우가 비흡연자는 3.6%, 흡연 중단자는 7.1%, 흡연자는 26.1%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음주를 자주하는 편이 흡연자에게 높게 나타났다($\chi^2=168.14$, $p=.000$). 또한 성경험과 관련하여 경험

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비흡연자가 6.5%, 흡연 중단자는 11.8%, 흡연자는 14.9%였고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비흡연자는 93.5%, 흡연 중단자는 88.2%, 흡연자는 69.2%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성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흡연자에게 높게 나타났다($\chi^2=46.78$, $p=.000$).

음주와 흡연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 흡연을 많이 할수록 음주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이며(이지원, 1998)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음주경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이은영(1992)의 연구와 유사하여 흡연과 더불어 학교음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박현상 외(1999)의 연구에서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매주 1회 이상 상습적으로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흡연과 음주, 약물남용 및 성 경험 등 일탈 행위는 상호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볼 때 흡연자의 흡연, 음주, 성행동에 대해서는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행동수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겠다.

학교 만족도와 관련하여 만족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비흡연자가 17.5%, 흡연 중단자는 19.6%, 흡연자는 10.0%였고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비흡연자는 18.3%, 흡연 중단자는 25.3%, 흡연자는 35.0%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학교에 대해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흡연자에게 높게 나타났다($\chi^2=18.31$, $P=.000$). 홍경의(2002)의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에 불만족한 경우가 만족한 경우보다 흡연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지원(1998)의 연구에서도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흡연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청소년이 보여주는 흡연과 같은

일탈행위는 학교의 적응 상에 어려움이 있을 때 발생하는 건전하지 못한 자신의 도피행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학교생활의 만족과 적응을 유도할 수 있는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비흡연자나 흡연 중단자에 비해 흡연자는 건강에 좋지 못한 생각과 행동을 보이므로 한달용돈, 선생님, 아버지의 흡연에 대한 생각, 흡연 장면에 대한 느낌, 음주, 학교만족 및 성경험과 같은 의미있는 요인을 포함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3. 흡연, 흡연중단 및 비흡연 청소년의 사회적 규범에 대한 신념, 친구와의 차별적 교제, 행위통제지각, 흡연의도 및 흡연거절에 대한 자기효능의 비교

흡연과 관련된 사회적 규범에 대한 신념에서 비흡연자의 신념이 흡연자의 신념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선영 외(2000)의 연구에서 흡연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어서 흡연이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할수록, 흡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홍경의(2002)의 연구에서도 흡연에 대한 태도는 흡연의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흡연의도가 흡연행위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점으로 보아 바람직한 건강행동 즉 금연행동은 바람직한 인식과 태도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금연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적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흡연 친구와의 차별적 교제를 검토해볼 때, 비흡연자보다 흡연자가 흡연하는 친구와의 차별적 교제가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흡연자의 친구 중에 흡연하는 친구가 존재하

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이는 정미영 외(2001), 손정남(2002), 정진희 등(2002)의 연구와도 일치하여 청소년기에는 친한 친구들로 형성된 또래집단을 매우 중요시하며, 이 집단을 통해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기 때문에 흡연자가 흡연하는 친구와 어울릴 수 있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친구의 흡연여부가 청소년의 흡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이유가 비슷한 문화를 경험하고 있는 친구와 동일한 행위를 함으로서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정서적 위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금연할 수 있도록 교육과 계몽을 통하여 비흡연 청소년이 많아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흡연은 일상생활 속에서 흡연자 자신이 스스로 조절하고 관리해야 할 영역이므로 금연을 하는 행동도 음주조절, 운동, 올바른 식습관 등과 같이 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위해 책임지고 관리할 부분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청소년이 흡연을 조절할 수 있는 통제행위에 대한 지각정도는 비흡연자나 흡연중단자가 흡연자보다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고 흡연의도 역시 비흡연자와 흡연중단자가 흡연자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의도를 나타내었다. 황혜숙(2000)은 청소년 흡연자의 금연의도 예측요인으로 행위통제 지각을 선택하였고 홍경의(2002)의 연구에서도 지각된 흡연통제력이 흡연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흡연의도가 흡연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생활 만족도도 흡연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학교생활에 만족할수록 흡연의도가 낮아지면서 흡연행위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정명(2000)은 청소년의 흡연행위를 예측하는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수를 흡연의도로 설명하였고 흡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직접적 요인은 태도, 주관적 규범 및 행위통제 지각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청소년이 흡연을 조절할 수 있는 통제행위에 대한 지각정도를 높이고 흡연의 의도를 낮추는 것이 흡연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인지적 요소이므로 흡연자나 비흡연자 및 흡연중단자에게 이러한 인지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금연 및 흡연예방 프로그램에 이러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토콜을 포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흡연거절에 대한 자기효능은 비흡연자가 흡연자보다 2배 이상 높은 점수를 나타냈는데, 이는 정진희 등(2002)의 연구와도 일치하며 이지원(1998)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이 청소년의 흡연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신성례(1997)도 자기조절 효능감 증진프로그램이 일반 금연프로그램보다 흡연정도를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프로그램임을 입증하여 청소년의 흡연예방에 자기효능이 중요한 중재방법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흡연유혹이 있을 때 거절할 수 있는 자기효능이 높은 청소년은 성공적인 금연을 이룰 수 있으므로 흡연거절에 대한 자기효능을 측정하고 중재하여 청소년의 금연률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청소년의 흡연 정도를 1개월 당 흡연

개피 수로 계산한 결과 91개피에서 270개피가 43.5%로 가장 많았고 271개피 이상이 21.7%로 나타났으며, 흡연 기간을 개월 수로 계산한 결과 12개월 이하 21.5%로 가장 많았고 37개월 이상이 16.51%, 13개월에서 24개월 11.53%, 25개월에서 36개월 10.0%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간 비교는 성별($\chi^2=31.19$, $P=.000$), 어머니의 학력($\chi^2=22.51$, $P=.004$), 한달용돈($\chi^2=28.51$, $P=.000$)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흡연관련 특성에 따른 집단간 비교는 선생님의 흡연에 대한 생각($\chi^2=33.95$, $P=.000$), 영화나 TV의 장면에서 흡연하는 것을 보았을 때의 생각($\chi^2=93.78$, $p=.000$), 아버지의 흡연에 대한 본인의 생각($\chi^2=88.77$, $p=.000$), 음주정도($\chi^2=168.14$, $p=.000$), 학교생활 만족도($\chi^2=18.31$, $P=.001$), 성경험($\chi^2=46.78$, $p=.000$)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변수에 따른 집단간 차이는 사회규범에 대한 신념($F=10.96$, $p=.000$), 친구와의 차별적 교제($F=176.18$, $p=.000$), 흡연을 조절할 수 있는 행위통제지각($F=39.65$, $p=.000$), 흡연의도($F=182.86$, $p=.000$), 흡연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거절에 대한 자기효능($F=15.04$, $p=.000$)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최초로 흡연을 경험하는 시기가 초등학교인 것으로 나타나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이 지역적 차별 없이 초등학교 때부터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아버지나 선생님이 우선적으로 금연을 함으로서 청소년들에게 모범적인 태도를 제공하

고 이를 통해 청소년의 금연을 유도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그 외에도 용돈을 건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담배 값을 인상하여 담배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본 연구의 결과로 나타난 흡연과 관련된 인지적, 사회적 변인인 사회규범에 대한 신념을 높이고, 흡연하는 친구와의 교제를 멀리하며, 흡연을 조절할 수 있는 행위통제에 대한 지각을 높이고, 흡연의도를 낮추며, 흡연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거절에 대한 자기효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청소년의 금연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금연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2. 제언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 1) 대부분의 대상자(81.3%)가 최초 흡연경험 시기를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보고한 점을 감안할 때 흡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지적 행동적 변수인 연구변수를 포함시켜 초등학교 때부터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흡연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 2) 연구의 대상자가 충남의 K시에 국한된 중학생, 고등학생이므로 다양한 요인과 다양한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반복 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 3) 흡연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금연 교육을 시도할 때 흡연의 지식적 교육 외에도 인지·사회적 연구변수를 고려한 증진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개발하여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금연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접수일자: 2003년 8월27

일, 게재확정일자: 2004년 2월 14일>

참고문헌

- 구창모. 체육환경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 권혜경, 정문숙, 홍해숙, 김신정. 실업계 고등학생의 흡연실태와 관련요인 및 니코틴 의존도. 경북간호과학지 2001;5(2):77-92.
- 김희경 외 11명. 청소년 흡연행위 영향요인.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002;13(2):376-386.
- 노정리. 남자고등학생의 사회적 영향을 강조한 흡연예방 프로그램의 효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 류미경 외 6명. 남자고등학생의 흡연행위군별 성격 특성. 대한보건협회학술지 2000;26(2):201-214.
- 박현상 외 5명. 청소년 흡연실태 및 약물남용 일탈행위와의 관련성. 가정의학회지 1999;20(4):386-400.
- 법제처. 대한민국헌법령집 1999;17(2).
- 부정민. 사회적 요인이 청소년의 음주·흡연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손정남. 청소년 흡연행위 예측모형구축. 고려대학교 대학원 간호학박사학위논문. 2000.
- 손정남. 흡연행위에 따른 남고생의 가족기능 및 가족 유형에 관한 조사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2002;11(1):78-88.
- 신성래. 흡연청소년을 위한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심희구.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흡연실태와 선도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9.
- 안황란, 오현숙. 흡연, 비흡연 여고생의 일반적인 특성과 인생태도 비교. 정신간호학회지 2002;11(3):375-387.
- 유일경. 청소년의 흡연경험과 학교생활, 가정환경,

- 흡연지식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윤용진, 권창희, 김용호, 김대현, 신동학. 도시와 읍면지역 남자 고등학생의 흡연율과 흡연위험 인식도 가정의학회지 1996;17(10):877-883.
- 이석구, 권윤희, 이길희. 일부 도시지역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흡연실태와 관련요인. 가정의학회지 2000;21(8):1042-1052.
- 이선영, 이시백. 청소년의 흡연에 관한 건강위험행위 연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00;17(2):1-14.
- 이은영. 흡연 고등학생의 심리. 사회적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이지원. 청소년의 흡연과 환경적 요인. 스트레스 및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임소연. 금연교육 프로그램이 흡연행동 변화에 미치는 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정미영, 박찬웅. 일부지역 중 고등학생의 흡연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보건협회 학술지 2001;27(1):39-52.
- 정진희, 박형숙. 실업계 흡연여고생의 흡연 영향요인과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02;8(2):271-283.
- 최정명. 청소년 흡연행위 예측모형구축.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 한국 금연운동협의회. 2001 이 달의 건강길라잡이. 보건복지부, 2001.
- 한국 금연운동협의회. 2002년 전국 중, 고등학교 학생 흡연 실태조사, 2002.
- 홍경의. 한국 여자대학생의 흡연행동 원인분석.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02;19(3):13-34.
- 황혜숙. 청소년 흡연자의 금연의도 예측요인. 고신대학교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Bandura, AA. Self-Efficacy mechanism in physiological activation and Health-promoting behavior. New York: Raven Press. 1988.
- Bertrand, LD and TJ. Abernathy. Predicting cigarette smoking among adolescents using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approaches. J. of School Health, 1993;63(2):98-103.
- Committee for Adolescence Guidance. Generalized Survey of Causes of Juvenile Delinquency. Committee for Adolescence Guidance Research Report, 1988.
- Hanson, MJ. The theory to planned behavior applied to cigarette smoking in African-American, Puerto Rican, and Non-Hispanic white teenage females. Nursing Research 1997;46(3):155-162.
- Krohn, MD, Akers R. Radosevich MJ. Ianza-Kaduce L. Norm quality and adolescent drinking and drug behavior. J of Drug Issue 1982;12:343-359.
- Newman, IM., Martin, GL., & Ang, J. The Role of Attitudes and Social Norms in Adolescent Cigarette Smoking. New Zealand Medical Journal 1982;95:618-621.

<ABSTRACT>

Comparison of Beliefs about Social Rules, Differential Peer Association,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Intention of Smoking, and Self Efficacy for Rejecting Smoking Among Smokers, Reformed Smokers, and Non Smokers in Adolescence

Hee-Kyung Kim* · Eun-Sook Choi** · Sun-Soon Moon** · Hyun-Sook Kang* ·
Hee-Sook Kang*** · Yoen-Suk Park* · Yeon-Soon Shin* · Jung-Sun Ann* · Soon-Ja Cho*

* *Department of Nurs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 *Department of Health, Kongju National University*

***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ongju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beliefs about social rule, differential peer association,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intention of smoking, and self efficacy for rejecting smoking among smokers, reformed smokers, and non smokers in adolescence.

The subjects were 576 adolescents in middle and high school, living in K city. The data was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s from December 1st to 18th, 2002 was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χ^2 -test, and ANOVA.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haracteristics related to smoking among smokers, reformed smokers, and non smokers in adolescence showed differences as follows: sex, mother's education, monthly allowance, thinking about teacher's smoking, feelings about the smoking scene, thinking about father's smoking, drinking, satisfaction of school, and sexual experience.

2) Belief about social rule, differential peer association,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intention of smoking, and self efficacy for rejecting smoking among the three groups showed differences as follows: smokers have a lower belief about social rule, lower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lower self-efficacy for rejecting smoking, but higher differential peer association and higher intention of smoking than those of reformed smokers and non smokers.

We recommend the development of a nursing program for anti-smoking behavior including the research factors affecting attitudes of smoking adolescents.

Key words : Beliefs about Social Rule, Differential Peer Association,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Intention of Smoking, Self Efficacy for Rejecting Smoking